

# 고려시대 東神聖母 숭배의 연원과 의미\*

윤경진\*\*

1. 머리말
2. 고구려의 國母 柳花
3. 고려의 東明 숭배와 '평양 창업' 인식의 배경
4. 東神聖母 숭배와 三韓一統意識
5. 맺음말

## 1. 머리말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로 출발하였다. 당초 궁예가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을 때 국호는 '高麗(後高麗)'였다. 이후 摩震, 泰封으로 국호를 바꾸었는데,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국호를 다시 '고려'로 환원하였다. 뒤이어 고구려의 舊都 平壤을 복구하고 西京으로 삼아 또 하나의 도읍으로서 위상을 부여하였다. 서경의 朱蒙(東明) 사당, 곧 東明聖帝祠는 이러한 고려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sup>1)</sup> 주몽은 '고려의 창업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주몽과 함께 고구려 정체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표상으로 東神聖母에 대한 제의가 이루어졌다. 聖母는 제왕을 낳은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0851).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金昌賢, 2005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 숭배와 민간신앙』 『歷史學報』 188;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東北亞歷史論叢』 24.

로서 특히 창업주의 어머니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성모의 상징성은 창업주를 낳은 것을 넘어 해당 국가의 연원을 표상하였다.

창업주의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天神 등과 연결됨으로써 권위를 반영하지만, 건국 집단과 창업주의 出自에 대한 인식은 담아내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국가 정체성의 지표로서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반면 성모는 대개 토착 집단 출신이어서 창업주의 현실적 출자를 뒷받침한다. 곧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는 직접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다.<sup>2)</sup>

건국설화에서 주몽의 아버지는 天神 解慕漱이며, 어머니는 河伯의 딸인 柳花로 되어 있다. 유화는 金蛙王이 거두면서 夫餘에 거주하였고, 주몽이 부여를 떠나 나라를 세웠음에도 자신은 부여에 남았다. 이러한 내용은 유화가 고구려의 부여 연원을 표상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창업주 주몽과 성모 유화에 대한 인식은 고려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고려에서는 평양의 東明聖帝祠와 더불어 개경에 東神祠가 있었다. 동신사는 東神聖母, 곧 유화를 모시는 사당이었다. 徐兢의 『高麗圖經』에는 동신사 항목이 있고, 『고려사』에도 제사처의 하나로 동신사가 몇 차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고려는 사실 고구려와 별개의 왕조로서 역사의식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성모 유화에 대한 인식이 고구려와 동일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고려는 고구려 정체성을 가졌을 뿐, 그 이전의 부여와 연결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고려에서 성모 유화가 가지는 함의는 고구려 시기와 다른 맥락에서 설명될 소지를 가진다.

또한 고려의 고구려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주몽을 통해 확보되었기 때문에 유화의 의미를 고구려 계승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동명 숭배에 대한 서술 과정에서 동신성모를 다룸으로써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동신성모를 전론으로 다룬 연구가 드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

2) 신화학적 관점에서 始祖母 신앙이 山神과 地母神의 상징으로 수용되면서 성모의 이름을 획득했지만, 父系 출계 및 가부장제 사회가 확립되면서 그 형상과 의미가 퇴색해 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천혜숙, 2002 『‘父性 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하지만 국가 이념 내지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성모 숭배는 창업주 숭배와 다른 층위에서 기능하며 공존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다.<sup>3)</sup> 그러나 유화의 사당이 개경에 마련된 것, 그리고 ‘東神’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 등은 고려의 역사의식에서 고려의 시조로서 동명의 상징과 구분되는 유화 나름의 의미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sup>4)</sup>

여기서 고려의 역사계승의식에서 근간을 이루는 三韓—統意識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 삼한일통의식은 삼국이 ‘三韓’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연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나로 합쳐졌다는 이념이다. 종래 7세기 신라가 ‘통일’ 전쟁을 수행한 이념적 기반으로 설명되었으나 근래 9세기 체제 위기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것이 지적되었다.<sup>5)</sup>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이를 체제 이념으로 채용함으로써 고려 일대에 걸쳐 역사의식의 바탕이 되었다.<sup>6)</sup>

삼한일통의식의 수립과 함께 삼한이라는 공통의 연원이 설정되면서 기존에 삼국이 각기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은 ‘東國’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수립되었다. 삼한은 당초 중국이 역사적 관점에서 삼국을 범칭하는 개념으로 채용되었으나 신라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삼한을 삼국과 개별적으로 대응시켰다.<sup>7)</sup> 하지만 고려

3) 전반적으로 柳花를 대표로 하는 聖母 숭배에 대해서는 그 신성성의 함의 및 그에 상응하는 신앙과 제의의 측면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신화학 내지 민속학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역사학 분야에서는 주로 국가제의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東神聖母는 대개 성모 숭배의 일반론 속에서 언급되었고, 고구려 시조모로서 원형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고려의 국가 이념 및 역사의식에서 동신성모가 차지하는 의미는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

4) 최근 동신성모에 대해 한국 고대 神母의 變移라는 맥락에서 검토한 성과가 있었다(채미하, 2016 『한국 고대 신모(神母)와 국가제의(國家祭儀): 유화와 선도산신모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52). 여기서는 유화와 선도산신모를 함께 동신성모로 파악하고 국가제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는 동신성모를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것이며, 유화와 선도산신모(성모)의 관계 또한 ‘공존’보다 ‘대체’의 맥락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후자는 後稿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한편 성모 숭배와 역사의식의 문제에서 백제 시조모 召西奴에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별도로 검토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5) 이와 관련된 저간의 논의와 주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고할 수 있다. 윤경진, 2019①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② 『삼한일통의식은 7세기의 이념인가』 『韓國古代史研究』 82; 2019③ 『신라 ‘삼국통일’ 논쟁의 논점과 방향』 『역사비평』 129.

6) 윤경진, 2016 『고려의 三韓—統意識과 ‘開國’ 인식』 『한국문화』 74; 2018 『고려 건국기의 三韓—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는 자신의 연원을 삼한의 하나로 국한하거나 삼한에 해당하는 역사적 실체를 전제하지 않았다. 삼한은 그대로 삼국의 역사에 흡수되었고 삼국의 출발이 곧 '동국=삼한'의 출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역사적 연원과 관련하여 고구려로부터 전승된 인식 또한 삼한일통의식으로 귀착되었다. 다시 말해 고구려가 실질적으로 '동국=삼한'의 출발이 되면, 주몽과 유화 또한 그 위상과 의미가 '동국'을 준거로 새롭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여 고려의 동신성모 숭배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고구려에서 형성된 성묘 유화의 숭배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sup>8)</sup> 특히 高登神(주몽)과 夫餘神(유화)이 함께 숭배되는 맥락을 검토하여 고려에서 양자가 숭배되는 상황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3장에서는 고려의 시조로서 동명(주몽)에 대한 숭배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고려는 동명의 사당을 세워 숭배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계승의식의 직접적인 표현인데, 특히 舊都 平壤을 동명의 창업지로 설정한 점에 주목하여 그 배경을 알아볼 것이다.<sup>9)</sup>

4장에서는 동신성모 숭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특히 평양에서 동명 숭배가 이루어짐에도 도읍 개경에 東神祠를 마련하고 聖母를 숭배한 의미를 고려의 삼한일통의식과 관련하여 찾아볼 것이다.

7) 이는 崔致遠이 진한-신라, 마한-고구려, 변한-백제의 구도를 수립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8) 고구려의 聖母(國母) 숭배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로는 다음이 있다.

金哲俊, 1975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性格』 『韓國古代社會研究』 一志社: 채미하, 2006 『高句麗의 國母信仰』 『北方史論叢』 12; 김인희, 2003 『고구려의 지모신앙과 성적제의』 『동아시아 여성신화』 集文堂; 朴承範, 2004 『祭儀를 통해서 본 高句麗의 正體性』 『高句麗研究』 18; 조이욱, 2004 『韓國古代의 國家形成과 女性信仰』 『東洋古典研究』 20; 채미하, 2016 앞의 논문.

9) 기존 연구에서는 西京의 위상과 더불어 동명 숭배의 의미를 다루었지만, 왜 평양이 동명의 창업지로 간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주목하지 않았다. 당초 평양이 동명의 창업지가 아니었던 만큼 그러한 인식 변화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동신성모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2. 고구려의 國母 柳花

고려의 성모 인식은 고구려의 國母 숭배를 연원으로 한다. 고구려 국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대체가 밝혀져 있다. 여기서는 기존 성과를 참고하되 특히 역사계승의식의 측면에서 그것이 가지는 내용과 의미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고구려 창업주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地母神 내지 농업신으로서의 속성이다.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天神으로서 권위를 나타낸다면, 강의 신 河伯의 딸인 유화는 농업신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속성은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그에게 五穀의 종자를 준 것에서 표상되고 있다.<sup>10)</sup>

고구려 제의에 나타나는 隧神은 이러한 농업신의 상징이 투영된 것이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隧穴이라 한다. 10월의 國中大會에서 隧神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가에 돌아와 제사를 지내는데, 神坐에 木隧를 설치한다.<sup>11)</sup>

위 기사는 『三國志』에서 고구려 제천행사인 東盟에 대해 서술한 기사 중 일부로, 대회 때 수혈의 신을 모셔와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隧神은 지모신 내지 농업신을 표상하며, 수혈은 지모신과 인간 세계의 연결 통로로 간주된다. 이에 농업신으로 수신의 원형을 유화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2)</sup>

이러한 농업신으로서 일반화된 면모와 더불어 국가 연원과 관련된 상징성이 주목된다. 이 부분은 太后廟와 夫餘神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고구려 건국설화를 보면 주몽이 부여를 떠나 나라를 세울 때 유화는 함께 가지 않았다. 이것은 주몽의 아들 유리가 주몽을 찾아갈 때 어머니(禮氏)와 함께 간 것이나 비류·온조 형제가 南遷할 때 어머니(召西奴)를 모시고 갔다는 내용

10) 김철준, 1975 앞의 논문.

11) 『三國志』 권30 魏志 烏丸鮮卑東夷傳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 還於國東上祭之 置木隧於神坐”

12) 채미하, 1995 앞의 논문, 351면; 김인희, 2003 앞의 논문, 254-260면.

과 대비된다. 유화가 부여에 남는 것은 고구려와 부여의 연결성을 입증하는 매개이다. 고구려의 부여 계승을 설화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것이다.

유화는 부여에서 사망하였고, 여기에 사당이 건립된 것으로 나온다.

王母 柳花기 東扶餘에서 사망하였다. 그 왕 金蛙가 太后의 禮로 장사지내고 마침내[遂] 神廟를 건립하였다.<sup>13)</sup>

위 기사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유화가 사망한 곳이 '동부여'로 나온다는 점이다. 주몽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즉위 기사에도 동부여 출신으로 나온다. 그런데 백제 건국설화와 『광개토왕비』에는 북부여 출신으로 되어 있어 고구려의 공식 입장이 북부여 출신으로 정리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위 기사는 祭祀志에도 실려 있으며, 그 출전을 '古記'로 밝히고 있다.<sup>14)</sup> 고구려의 공식적인 인식은 북부여 출신이었다고 보면 『古記』는 이와 다른 계통의 자료로 생성된 것이며, 이 자료에서 건국설화와 더불어 유화를 제사하는 신묘의 건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 이해된다. 예외적으로 건국설화와 신묘 건립 기사에만 유화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그 관계성을 뒷받침한다.<sup>15)</sup>

한편 『三國遺事』 北扶餘 항목을 보면, '古記'를 인용하여 天帝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고 그 아들 解夫妻가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로부터 고구려가 북부여를 계승하여 발흥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동부여 항목에서는 북부여왕 해부루의 재상 阿蘭弗의 건의에 따라 동해안의 迦葉原에 천도하고 국호를 '동부여'라 한 것으로 적고 있다. 『삼국사기』의 내용은 이와 유사한데, 해부루가 '부여왕'으로 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위 기록들은 주몽의 출자와 관련하여 동부여와 북부여 두 가지 전승이 있었고, 이를 하나로 정리하기 위해 북부여가 천도를 통해 동부여로 改號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경우 주몽의 출자는 『삼국유사』의 설명처럼 궁극적으로

13)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14년 8월 “王母柳花 薨於東扶餘 其王金蛙 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14) 『三國史記』 권32, 雜誌11 祭祀.

15) 이외에 『東明王篇』에 동부여와 유화 이름이 나온다.

북부여로 귀착된다.

그러나 실제 고구려의 인식에서 북부여와 동부여는 선후의 계승관계가 아니었다. 『광개토왕비』의 서두에는 鄒牟에 대해 “北夫餘에서 나왔다”라고 하였고, 庚戌年 기사에 “東夫餘는 예전에 鄒牟王의 屬民이었는데 도중에 반역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였다”라고 하였다. 앞서 추모가 북부여 출신이라고 한 반면 동부여에 대해 “추모의 속민”이라고 한 것은 5세기 고구려가 북부여와 동부여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古記에서 북부여가 동부여로 이어졌다고 본 것과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 동부여를 주몽의 속국으로 간주한 상황에서 이후 주몽의 출자를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 동부여 출신으로 인식되던 것을 나중에 북부여로 바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광개토왕비』 기록은 이렇게 바뀐 결과를 반영한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출자 인식을 양립시키기 위해 북부여가 동부여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sup>16)</sup>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동부여 항목에는 도움을 옮기게 되는 이유로 천제가 “장차 내 아들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立國於此] 너는 피하라”라고 한 내용이 나온다. 일연은 이에 대해 “동명이 장차 일어날 징조”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이곳’은 북부여를 나타낸다. 그런데 주몽은 졸본으로 이주하여 그곳의 松讓을 밀어내고 나라를 세웠으므로 “立國於此”라고 한 것과 어긋난다. 이것은 고구려가 졸본 건국 후 북부여로 간주된 지역을 흡수하면서 유도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결국 당초 동부여 출자 관념을 가지고 있던 고구려는 북부여 흡수 후 이를 연원으로 재인식하였고, 동부여는 속국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16) 임기환은 『광개토왕비』 건립 시점에 동부여 관련 전승이 성립되어 있었으며, 두 전승이 별개의 시조 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임기환, 2016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 광개토왕비문의 北夫餘, 東夫餘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4). 필자는 북부여의 동부여 이동이라는 전승이 만들어지는 것은 선행한 동부여가 북부여에 흡수되는 맥락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체 관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고구려의 확장, 또는 왕계 변동에 수반된 것으로 판단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후일의 과제로 미룬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太后廟 건립과 연관된다. 기사에서 ‘太后’의 예로써 장례를 치르고 神廟를 세웠다는 부분은 후대의 사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 기사 자체가 건국설화와 연계되어 있어 그 사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태후 칭호와 신묘의 신성성은 어디까지나 고구려에서 설정되는 것이므로 신묘 또한 고구려의 의도에 의해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부여가 유화의 신묘를 건립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sup>17)</sup>

실제 신묘의 성립은 太祖王 때의 일로 판단된다. 태조왕대에는 유일하게 태후묘 참배 기사가 나타난다.

왕이 부여에 행차하여 太后廟에 제사지냈다. 곤궁한 백성을 보살피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sup>18)</sup>

위 기사는 태조왕 69년(121)의 것으로서 왕이 부여까지 가서 태후묘를 참배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부여의 태후묘는 통상 동명왕 14년 유화에 대해 태후의 예로 장례를 치르고 신묘를 세웠다는 기사와 연결하고 있다. 이 경우 태후묘는 유화의 사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신묘로 제향되는 ‘태후’의 의미는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창업주의 어머니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유화의 사당으로서 신묘의 건립을 말한 것도 창업주 주몽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후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또 있다. 바로 태조왕의 母后이다. 태조왕은 왕호가 예외적이다. ‘太祖’는 창업주에게 부여되는 칭호이다. 또한 그는 ‘國祖王’으로도 불렸다. 어떤 의미로든 그는 창업주에 상응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장작 태조왕은 7세에 즉위하여 모후가 섭정한 것으로 되

17) 금와왕의 행위에 대해 동명의 고구려 건국을 의식한 조치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채미하, 2006 앞의 논문, 343면), 초기 국가 단계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인 역사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보다는 고구려인의 인식에 의해 사당 건립을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구성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또한 구문에서 ‘遂’는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앞의 내용과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8)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太祖王 69년 10월 “王幸扶餘 祀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어 있다.

태조왕의 재위 기간에 대한 고증 과정에서 인용한 『海東古記』에는 高句麗 國祖王 高宮이 7세에 즉위하여 國母가 섭정한 것으로 적고 있다.<sup>19)</sup> '國母' 칭호는 '國祖' 칭호와 맞물려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태조'가 가지는 창업의 상징성이 모후에게 소급되며, 국모로서 태조왕의 창업 상징에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후가 '부여인'임이 명시된 것은 이 상징이 부여로 연결됨을 반영한다. 곧 부여 태후묘는 바로 태조왕 모후의 사당으로 수립된 것이며,<sup>20)</sup> 모후가 부여 출신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고구려의 부여 출자를 표상한 것이다.

결국 부여의 태후묘는 국모의 출신을 통해 고구려의 출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부여는 태조왕계의 성립과 『광개토왕비』의 내용을 연결할 때 북부여로 판단된다. 기존 왕계가 동부여 출자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데 대해 태조왕대에 이를 북부여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sup>21)</sup>

그런데 이후 고구려의 시조로서 주몽의 위상이 확립되면서 부여의 태후묘는 유화의 사당으로 재인식되었다. 이것이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夫余(夫餘)神이다.

神廟가 두 곳 있는데, 하나는 夫余神으로서 나무를 깎아 婦人의 像을 만들었고, 하나는 高登神인데 그 始祖로서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아울러 官司를 두고 사람을 보내 수호한다. 대개 河伯女와 朱蒙이라고 한다.<sup>22)</sup>

19)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太祖王 94년 “高句麗國祖王高宮 以後漢建武二十九年癸巳 卽位 時年七歲 國母攝政.” 建武 29년의 간지는 癸巳가 아니라 癸丑이다.

20) 태후묘가 태조왕의 태후를 모시는 곳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李鍾泰, 1990 『高句麗太祖王系の 登場과 朱蒙國祖意識의 成立』 『北岳史論』 2, 89면),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강경구, 2001 『고구려 신묘에 대하여』 『고구려의 건국과 시조숭배』, 학연문화사, 310-313면).

21) 太祖王은 그 칭호와 재위 연수 등을 통해 고구려 왕계의 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 과정에 부여 출자 관념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본고는 국모 유화에 대한 인식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당시 정치사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삼는다.

22) 『北史』 권94 列傳82 “有神廟二所 一曰夫余神 刻木作婦人像 一曰高登神 云是其始祖 夫余神之子 并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

위의 기사는 『北史』의 기록으로서 고구려의 두 神廟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 신묘는 夫餘神과 高登神을 제향하며, 그 神像은 河伯女, 곧 유화와 시조 주몽으로 설명되고 있다.<sup>23)</sup>

이 때 “사람을 보내 수호한다”라고 한 점과 시조묘가 졸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sup>24)</sup> 부여신의 신묘 또한 도읍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부여신의 신묘가 부여에 있는 태후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부여의 건국자인 동명이 주몽과 동일시되면서 유화 또한 夫餘母로 인식되고 이에 태후묘를 격상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울러 평양 천도 후 부여신묘도 평양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25)</sup> 하지만 당초 도읍에 있지 않았던 부여신묘를 평양천도에 수반하여 옮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부여신’이라는 명칭은 사당이 부여에 있다는 점<sup>26)</sup>과 더불어 부여 출자의 상징성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서는 부여신이 부여에 대한 영역지배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백녀가 부여신이 되면서 부여족 전체의 어머니로 자리매김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27)</sup>

그러나 고구려가 범부여계의 대표성, 혹은 부여의 동질성 내지 동원성을 토대로 한 통합의 지향을 가졌는지 분명치 않다. 설사 그러한 대표성을 설정하더라도 그것은 주몽이 부여의 시조 동명과 융합되는 데서 이미 유도된다.<sup>28)</sup> 따라서

23) ‘高登’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부여’신 명칭과 대비할 때 고구려의 국호 또는 왕실의 성씨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곧 ‘고등’은 ‘고씨의 시조’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당초 이 신이 동명이었다 하더라도 제의의 성립 단계에서 이미 주몽과 융합 되었으므로 그 의미는 주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4) 『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3년 9월 “王如卒本 祀始組廟.”

시조묘와 고등신묘를 구분하여 후자는 평양천도와 함께 평양에 마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채미하, 2006 앞의 논문, 358면). 그런데 고국양왕 때 宗廟가 마련된 뒤에도 시조묘는 그대로 졸본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시조를 대상으로 한 고등신묘가 평양에 따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25) 박승범, 2004 앞의 논문, 453면.

26) 고구려왕이 계속 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사당을 건립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채미하, 2006 앞의 논문, 343-344면).

27) 채미하, 2006 앞의 논문, 358면.

28) 『광개토왕비』에서 鄒牟(주몽)의 출자를 북부여로 제시하면서 동부여에 대해서는 추모의

‘주몽의 어머니’의 상징성은 이와 별개로 출자 관념, 곧 고구려와 부여를 연결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 3. 고려의 東明 숭배와 ‘평양 창업’ 인식의 배경

고구려의 국모 숭배는 시조 숭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부여신(유화)과 고등신(주몽)의 신묘가 병존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고려에서도 양자에 대한 숭배는 공존했지만, 그것이 고구려 때와 동일한 함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에서 부여와 관련된 정체성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모 숭배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려에서 동명 숭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고구려와 고려는 서로 다른 국호로 인식되고 있지만, 당초 고구려의 실제 국호는 ‘高麗’였기 때문에 두 나라는 동일한 국호를 가진 하나의 왕조로 간주되었다. 그 사이에 발생한 멸망과 부흥, 혹은 국왕의 성씨 교체를 매개로 양자는 前高麗와 後高麗로 구분되었다.<sup>29)</sup> 따라서 고려의 출발은 곧 고구려 시조 동명(주몽)으로 소급되며, 그에 상응하는 國祖 숭배가 이루어졌다.

동명의 사당은 평양에 있었다. 『고려사』 지리지 西京 항목에 東明聖帝祠(東明王廟·東明神祠)가 보인다.

仁里坊에 祠宇가 있는데, 고려에서 때때로 御押을 내려 제사를 행하며, 朔望에도 역시 그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畚人이 지금도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世傳에 東明聖帝祠라고 한다.<sup>30)</sup>

‘屬國’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를 屬民으로 규정하는 천하관을 표방하고 있다. 반면 부여의 동질 의식이나 부여 통합의 지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구려에게 ‘범부여계’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백제는 동명왕을 숭배하고 있었고, 개로왕 국서에서도 백제의 고구려가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과 고구려의 동질성을 표방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부여 출자는 각각의 정체성을 나타낼 뿐,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의미로 채용되지는 않은 것이다.

29) 윤경진, 2014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위에서 御押을 내려 제사를 지낸다고 한 것은 곧 국왕이 주재하는 제사가 행된다는 의미이다. 국초 기사에 산견되는 서경의 齋祭는 국왕이 서경에 親幸했을 때 동명성제사에서 지낸 제사를 가리킨다. 태조의 서경 복구에 비추어 볼 때 서경 재제는 기본적으로 고구려계승의식과 관련될 것인데,<sup>31)</sup> 그 핵심은 고구려계승의 표상인 동명왕에 대한 제사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사당은 태조의 서경 재제가 처음 확인되는 태조 9년 이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2)</sup>

이후 동명성제사 기사는 꾸준히 등장한다. 현종 2년(1011) 평양의 木覓과 橋淵, 道知巖, 東明王 등의 神에게 勳號를 추가하는 조치가 있었다.<sup>33)</sup> 숙종 10년(1105) 동명성제사에 사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衣幣를 바친 일이 있었고,<sup>34)</sup> 예종 4년(1109)에도 목역과 동명신사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sup>35)</sup> 이들은 공통적으로 거란 또는 여진과 전쟁하던 시기에 승첩을 바라는 특별 제의의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祈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의 하나로도 산견된다.

한편 서경 藝祖廟는 바로 동명성제사로 판단된다.

西都에 사신을 보내 藝祖廟에 제사하였다. 서도는 藝祖가 일어난 곳이다. 지금까지 衣冠이 그 사당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後王이 연등회와 팔관회에 대신을 보내 致祭하였다.<sup>36)</sup>

藝祖는 왕조의 시조를 가리킨다. 위에서 말한 예조에 대해서는 태조 왕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예조묘는 태조의 서경 眞殿인 聖容殿으로 이해기도 한다.<sup>37)</sup>

30) 『高麗史』 권58, 地理3 西京留守官 平壤府 “仁里坊有祠宇 高麗 以時降御押行祭 朔望亦令其官行祭 邑人至今有事輒禱 世傳東明聖帝祠”

31) 蔣尙勳, 1996 『高麗 太祖의 西京政策』,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166-167면. 한편 위 기사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서경 재제의 핵심은 연등회와 팔관회였다고 이해된다(김창현, 2005② 「고려 서경의 사원과 불교신앙」 『韓國史學報』 20, 30-33면).

32) 윤경진, 2014 앞의 논문, 156면.

33) 『高麗史』 권4, 顯宗 2년 5월 丁亥 “加平壤木覓橋淵道知巖東明王等神勳號”

34) 『高麗史』 권63, 志17 禮5 吉禮小祀 雜祀 肅宗 10년 8월甲申 “遣使 祭東明聖帝祠 獻衣幣”

35) 『高麗史』 권13, 睿宗 4년 4월 乙酉 “遣同知樞密院事許慶 祭平壤木覓東明神祠”

36) 『高麗史』 권63, 志17 禮5 吉禮小祀 雜祀 明宗 20년 10월 甲申 “遣使西都 祭藝祖廟 西都 藝祖之所興也 至今衣冠 猶在其廟 故後王 每於燃燈八關 遣大臣致祭”

실제 예조가 태조 왕건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sup>38)</sup> 서경에 대해 “예조가 발흥한 곳”이라는 설명에 비추어 동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39)</sup> 왕건은 즉위 후 평양을 복구하고 堂弟 式廉을 보내 지키도록 했을 뿐, 왕건의 창업과 서경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상 태조의 즉위는 당초 ‘창업’이나 ‘개국’의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고려를 고구려와 구분된 별개의 왕조로 상정하더라도 그 창업은 궁예가 한 것이었다. 태조는 즉위 후 궁예를 ‘前主’로 지칭하며 도적을 제압하고 민생을 구제한 업적을 인정하였다.<sup>40)</sup> 또한 즉위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金行濤 등 대상자들에게 “모두 創業의 시작부터 종사하였고, 佐命의 공훈을 다하였다[咸從創業之始 俱罄佐命之勳]”라고 평가하였다.<sup>41)</sup> 여기서 ‘창업’은 궁예의 후고려 건국을 말하며, ‘좌명’은 태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것을 말한다.<sup>42)</sup> 태조의 즉위는 ‘창업=개국’이 아니라 ‘좌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태조의 ‘개국’은 후삼국 통일로 귀결되어 있다.<sup>43)</sup>

반면 평양은 고려에서 동명의 사적지로 규정되고 있었다. 『고려사』 지리지 西京 항목을 보면 동명의 사적이 여럿 실려 있다.

37) 김철웅, 2002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韓國史研究』 118, 151면; 김창현, 2005 앞의 논문, 107-108면; 채미하, 2009 앞의 논문, 163-164면.

38) 이규보의 문집에 태조 왕건을 藝祖로 칭한 사례가 보인다(『東國李相國集』 권41, 甲午年 談禪日齋疏 “我藝祖 因如哲大士之密說 輓禪軌於三韓”). 다만 이것은 태조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한 것이며, 무신집권기의 변화된 역사의식을 반영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자세한 의미는 별고를 통해 논할 것이다.

39) 김광수,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歷史教育』 43, 96면; 윤경진, 2014 앞의 논문, 157-161면.

40) 『高麗史』 권1, 太祖 원년 6월 丁巳 “前主當四郡土崩之時 剷除寇賊 漸拓封疆 未及兼并海內”

41) 『高麗史』 권1, 太祖 원년 6월 辛酉.

42) 관점에 따라서는 創業과 佐命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모두 창업의 시작부터 종사했다”라고 한 것은 즉위 6일만에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태조의 즉위를 준거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창업과 좌명은 이들의 활동을 두 단계로 설명한 것으로, 전자는 궁예의 건국, 후자는 왕건의 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윤경진, 2016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 『한국문화』 74.

- ① 東明王墓는 府의 동남쪽 中和 경계의 龍山에 있는데, 속칭 珍珠墓라고 한다.
- ② 永明寺는 곧 東明王의 九梯宮이다.

서경에 동명의 묘와 궁궐을 설정한 것은 이곳이 동명이 창업한 곳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주몽이 나라를 세운 곳은 卒本이고, 이곳에 주몽의 사당인 始祖廟가 있었다.

결국 평양의 동명 사적은 고구려 당시 倭本에 있던 사적을 그대로 평양으로 옮겨온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주몽의 창업에 수반된 다른 사적도 함께 이동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松讓의 사적이다.

부여를 떠난 주몽은 卒本川에 이르러 도읍을 삼고, 곧이어 沸流水 가에 집을 짓고 나라를 세웠다. 따라서 비류수는 倭本천과 같은 지역을 구성한다. 송양은 바로 이곳에 있던 沸流國의 왕이었다. 주몽과의 경쟁에서 밀린 송양은 결국 그 에 복속되었다. 다만 주몽에 納妃하는 데서 유추되듯이 두 세력의 결합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주몽의 창업 과정에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송양은 동명의 사적이 평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함께 평양 인근에 설정되었다. 그곳이 바로 成州(성천)이다. 『고려사』 지리지 성주 연혁에는 “本沸流王松讓之故都”라고 적고 있다. 성주는 평양에 인접하고 있다. 이곳이 송양의 사적으로 구성되는 매개는 대동강의 지류인 沸流江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成川都護府 항목을 보면, 山川조에 沸流江이 있고 이곳이 卒本川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송양 사적을 옮겨오면서 비류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이름을 이용하여 송양 사적을 넣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sup>44)</sup> 이것이 평양의 동명 사적과 연계된 것임은 분명하다. 『삼국유사』에서 고구려의 건국지인 倭本에 대해 고증하면서 成州로 보는 설을 소개했는데, 이는 비류강을 매개로 생성된 것이다.<sup>45)</sup>

44) 비류강 항목을 보면, 紇骨山 밑을 지날 때 강물이 그 아래의 굴을 뚫고 흐르면서 沸騰하기 때문에 비류강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있다.

45)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건국지인 倭本에 대해 “或云今和州 又成州”라고 소개하며 모두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성주는 곧 전술한 송양의 사적과 관련되며, 和州 또한 이 지역

비슷한 사례로 黃龍國을 들 수 있다. 황룡국은 유리명왕 시기 고구려와 외교적 갈등을 빚은 나라로서<sup>46)</sup> 고구려와 인접할 것이다. 이에 고구려 칭업지가 평양으로 설정되면서 황룡국도 인접한 龍岡縣에 비정되었다.<sup>47)</sup>

이처럼 평양에 동명의 사적이 만들어진 것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줄본은 고려 영토 밖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창업 사적을 표현할 지속적인 매개가 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줄본을 동명의 사적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도 평양으로 옮겨온 것이다.

태조는 즉위 직후 평양을 복구하고 大都護府로 삼아 북방 개척에 주력하였다. 평양을 발판으로 한 북방 개척은 고구려 고토의 수복을 지향하며, 이는 “동명의 옛 땅”을 되찾는다는 명제로 수립되었다. 국초에 수립된 동명성제사는 이러한 지향을 반영한다.

하지만 거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을 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고유 영토로 설정하였다.<sup>48)</sup> 요동은 더 이상 고려가 수복해야 할 고토로 표방될 수 없었다.

영토 수복이라는 명제가 현실적 함의를 상실하게 되면서 이는 국가 정체성의 약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고구려 창업 사적이 자신의 영토 밖에 있다는 것은 전고려와 후고려의 연결을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필요하였다. 이에 국초에 수립된 동명의 사당 외에 궁궐과 묘까지 만들어 평양을 동명의 古都로 수립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고려(고구려)의 건국은 현 고려(후고려)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압록강 너머 영토 확보와 상관없이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sup>49)</sup>

에 있던 沸流川을 통해 생성된 것이다.

46)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27년 정월 및 3월.

47) 『高麗史』地理志 成州 연혁에는 “本高麗黃龍城”으로만 나오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成川都護府 연혁에는 본래 黃龍國으로서 고구려가 병합하였고 고려에서 黃龍城이라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48) 『高麗史』 권7, 文宗 9년 7월 丁巳 “當國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 矧前太后皇帝 玉册頒恩 賜茅裂壤 亦限其江”

49) 이 점에서 동명성제사와 함께 동명의 묘와 궁궐도 국초부터 이미 수립되었을 여지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함의는 압록강 경계 확정을 통해 보다 분명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고려가 南平壤을 설정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통상 고구려가 대동강변의 도읍 평양 외에 양주, 곧 현 서울 지역에 또 하나의 평양을 두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에서 헌덕왕 때 고달산적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梵文이 평양에 도읍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보면, 이곳을 양주에 비정하고 태조의 『庄義寺齋文』의 “高麗舊壤 平壤名山”이라는 구문을 인용한 細註가 달려 있다.<sup>50)</sup>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漢城府 연혁에는 “本高句麗南平壤城 一名北漢山郡”이라 되어 있고, 『고려사』 지리지 南京(楊州) 연혁에는 “本高句麗北漢山郡 <一云南平壤城>”이라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남평양의 존재는 통설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남평양은 고려의 영토의식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지적되었다.<sup>51)</sup>

신라 이래의 영토의식은 671년 『答薛仁貴書』에 나오는 “平壤已南 百濟土地”였다. 이 구문 또한 신라의 ‘삼국통일’에 맞추어 “평양 이남의 고구려 토지와 백제 토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해석이며, “평양이남이 곧 백제토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sup>52)</sup>

고려가 거란과 1차 전쟁을 벌일 때 대동강 이북을 할양하자는 주장은 바로 이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徐熙는 고구려 땅을 할양할 경우 三角山 이북을 모두 넘겨주게 된다고 반대하였다. 당시 고려에는 삼각산 내지 한강까지 고구려 영토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한강을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고구려가 한강까지 남진했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다.<sup>53)</sup> 기존 “평양이남 백제토지”에서 평양은 곧 고구려의 남방 경계가 된다.

50)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7년 정월.

51) 윤경진, 2017① 『고구려 ‘南平壤’의 실체와 출현 배경』 『서울과 역사』 95.

52) 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논점과 이를 ‘평양이남=백제토지’로 보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주 5)의 논문 참조.

53) 이것은 장수왕의 南征 이후 고구려가 한강 이남을 영유했다는 기존 입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윤경진, 2020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서울학연구』 81 참조.



이 경계가 한강으로 내려오면서 그에 맞추어 한강 북쪽에 평양을 설정한 것이다.

고려가 이와 같이 영토의식을 수립한 것은 고려가 건국된 송악의 위치 때문이다. 기존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입각하면 고려는 백제 땅 내지 이를 병합한 신라 땅에서 세워진 것이 된다. 이는 고려의 정체성에 부담을 주거나 특히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고 패강의 물로 말을 먹이겠다”<sup>54)</sup>고 천명한 견훤의 주장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한강 북쪽에 별도의 평양을 설정함으로써 대동강 경계에 따른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한강 경계로 치환한 것이다.

평양에 동명의 사적을 구성한 것도 이와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 동명의 건국지 졸본의 사적을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에 수립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역사의식을 존속시킨 것이다. 평양이 ‘根本之地’로 제시된 것은 일차적으로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舊都로서 위상이 깔려 있으며, 이는 고려의 발흥지, 나아가 동국 역사의 출발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병존한 송악의 聖母 사당, 곧 東神祠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고려의 藝祖로서 동명이 고구려와의 일체성을 확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에 대한 숭배는 그와는 다른 맥락을 가질 것인데, 다음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천착해 보기로 한다.

#### 4. 東神聖母 숭배와 三韓一統意識

東神聖母를 제향하는 東神祠(東神堂)는 문종대 기록에 처음 보인다.

禮部에서 아뢰기를, “초여름부터 비가 제때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廣州가 보고하기를 田野가 타들어간다고 하니 올해 농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바라건대 松岳과 東神堂, 諸神廟, 山川, 朴淵 등 다섯 곳에 7일마다 한 번씩 기도하십시오. 또 광주 등 州郡으로 하여금 각기 祈雨를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허락하였다.<sup>55)</sup>

54) 『高麗史』 권1, 太祖 10년 12월 “所期者 掛弓於平壤之樓 飲馬於溟江之水” 이것은 평양 내지 패강까지를 백제의 고토로 규정하고 그 수복을 천명한 것이다.

위 기사에는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서<sup>56)</sup> 東神堂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諸神廟와 구분하여 따로 언급되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동신당을 위시한 5개소의 기우제는 숙종 4년(1099) 기사에도 보인다.<sup>57)</sup>

이후 동신사는 기우처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보이는데,<sup>58)</sup> 인종 8년(1130)의 다음 기사가 마지막 사례이다.

조서를 내려 再雩하여 비를 빌었다. 太史가 아뢰기를, “반드시 川上, 松岳, 東神, 諸神廟, 栗浦, 朴淵에 제사하고 나서 再雩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땅히 兩京 内外의公私 토목 공사를 중단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sup>59)</sup>

위 기사에는 중요 제사처로 기존 5개소 외에 栗浦가 추가되어 있다. 이후 동신사는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 이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폐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고려사』 식화지 祿俸조에서 문종 30년(1076)에 제정된 文武官祿을 보면, 8석 10두 항목에 “諸神廟直 神堂 栗浦直”이 보인다. 여기서 ‘神堂’은 전후 구문과 대비할 때 뒤에 ‘直’이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함께 열거된 諸神廟는 기우제를 지내는 5소 중의 하나이고, 栗浦는 앞서 인용한 인종 8년 기사에 5소와 함께 열거되어 있다.<sup>60)</sup> 그렇다면 이 神堂은 기우처로 지속적으로 언급된 東神堂으

55) 『高麗史』 권8, 文宗 11년 5월 戊寅 “禮部奏 自孟夏 雨澤愆期 又廣州報 田野乾焦 殆失歲望 請於松岳東神堂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 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 各行祈雨 制可”

56) 여기서 山川은 5소의 하나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미로 볼 수 없다. 여타 사례를 참고할 때 川上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57) 『高麗史』 권54, 志8 五行2 木 肅宗 4년 8월 丙子 “祈晴于松岳東神川上諸神廟朴淵等五所.” 홍수나 가뭄 때 松岳 溪上에서 百神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川上祭라 하였다(『高麗史』 권63, 志17 禮5 吉禮小祀 雜祀 靖宗 원년 5월 甲辰 “祈晴于川上 每水旱 祭百神於松岳溪上 號曰川上祭”).

58) 『高麗史』 권11, 肅宗 5년 6월 乙卯 “禱雨于太廟八陵及松嶽東神祠”; 『高麗史』 권12, 睿宗 2년 4월 甲申 “禱雨于松嶽東神祠”; 『高麗史』 권63, 志17 禮5 吉禮小祀 雜祀 睿宗 11년 4월 丁卯 “遣使祈雨於上京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及西京木覓東明祠道哲岳梯淵”

59) 『高麗史』 권54, 志8 五行2 金 仁宗 8년 4월 戊子 “詔再雩祈雨 太史奏 必先祈川上松岳東神諸神廟栗浦朴淵而後再雩 可也 宜當兩京内外公私罷土木興作之役 從之”

60) 栗浦는 숙종 때 5소 기사에는 들어 있지 않다가 인종 때 기사에서 비로소 출현한다. 그렇

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

한편 인종 때 개경에 온 宋의 사신 徐兢이 남긴 『高麗圖經』에는 개경의 祠宇로서 東神祠에 대한 서술이 들어 있다.

東神祠는 宣仁門 안에 있다. 땅이 좀 평평하고 넓은데, 正殿의 집이 낮고 누추하며 行廊과 月廊 30간은 황량하게 수리하지 않은 채로 있다. 정전에는 ‘東神聖母之堂’이란 榜이 붙어 있고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이 神像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夫餘의 妻로서 河神의 딸이라고 한다. 그녀가 朱蒙을 낳아 고려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전부터 使者가 오면 관원을 보내어 奠祭를 마련하는데 그 牲牢와 酌獻은 崧山神에 대한 법식과 같다.<sup>61)</sup>

위에서 개경에 東神聖母를 제사하는 東神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신성모는 주몽을 낳았다는 설명에서 유화임이 확인된다.

나무를 깎아 부인 모습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고구려 부여신에 대한 설명과 흡사하다. “부여의 처”라는 서술도 ‘부여신’이라는 종래의 명칭으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sup>62)</sup> 그가 제사를 받는 이유는 고려 시조 주몽을 낳았기 때문인데, 이는 물론 고려가 고구려와 하나의 나라로 간주된 역사의식에 기초한다.

그런데 공식 이름이 ‘東神聖母’라는 것은 종래의 ‘부여신’과는 함의가 전혀 다르다. 부여신은 고구려의 연원으로서 부여를 표상한다면, 동신은 ‘東國의 神’으로

다면 이는 숙종대 이후에 추가된 것이며, 이 내용이 담긴 文武官祿 기사는 문종 30년 제정 이후 내용이 追記된 것으로 판단된다. ‘神堂’ 뒤에 ‘直’이 붙지 않은 것을 보면 기존의 “神堂直”에서 ‘神堂’과 ‘直’ 사이에 ‘栗浦’를 추가함으로써 ‘神堂’에 ‘直’이 빠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가의 원리는 外官祿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윤경진, 2010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외관록(外官祿) 규정의 기준 시점과 성립 배경』 『역사와현실』 78).

61)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7, 祠宇 東神祠 “東神祠 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 東神聖母之堂 以帟幕蔽之 不令人見 神像蓋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 爲高麗始祖 故祀之 舊例 使者至則遣官設奠 其牲牢酌獻 如禮崧山神式”

62) 이 경우 유화의 배우자로 천신 해모수 대신에 부여왕 금와를 염두에 둔 것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서 보편성을 가진다. 이는 주몽이 ‘고려의 시조’를 넘어 ‘동국의 시조’로 인식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고려가 고구려를 넘어 부여 정체성을 가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고려의 역사의식과 관련된다. 고려는 고구려와 일체화된 나라이자만 동시에 三韓을 一統한 나라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삼한은 삼국 공통의 연원이다. 다시 말해 고구려도 삼한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고구려를 마한과 연결하는 인식은 그 예이거니와 굳이 어느 하나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삼한에 수용된다. 나아가 삼국은 그 자체로 삼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더 이상 부여를 고구려의 연원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유화 또한 고구려의 부여 정체성을 반영하던 부여신으로서의 위상을 탈각하게 된다. 이 때 고려의 연원이 삼한으로 귀속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한 존재가 되면, 주몽은 고려 시조를 넘어 동국 역사의 출발을 표상하게 된다. 삼한은 연원적 정체성의 표현일 뿐으로 그 자체가 별도의 국가 내지 시조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한으로 표상되는 역사는 고구려가 중심이었고 그 출발은 주몽이다. 따라서 주몽은 ‘삼한=동국’의 시조가 된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연원이 삼한으로 설정되고 주몽이 동국의 시조로 규정되면, 주몽을 낳은 유화는 그에 상응하는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동신성모라는 명칭은 ‘동국의 시조’를 낳았다는 데서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이러한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① 政和 연간에 우리 조정에서 尙書 李資諒을 宋에 보내어 조공했는데, 신 富軾이 文翰의 임무를 띠고 보좌하며 갔다. 佑神館에 이르러 한 집에 女仙의 像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다. 館伴學士 王黼가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 나라의 신인데, 그대들은 이를 아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말하기를, “옛날 帝室의 딸이 남편 없이 잉태하여 사람들의 의심을 받자 바다를 건너 辰韓으로 가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海東始主가 되었다. 帝女는 地仙이 되어 오래도록 仙桃山에 있는데, 이것이 그녀의 像이다”라고 하였다.<sup>63)</sup>

63)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12 “政和中 我朝遣尙書李資諒 入宋朝貢 臣富軾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② 신이 또 송의 사신 王襄의 『祭東神聖母文』을 보았는데 “현인을 잉태하여 나라를 처음 세웠다[娠賢肇邦]”는 구절이 있었다. 이에 東神이 곧 仙桃山聖母임을 알았으나, 그의 아들이 어느 때 왕이 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sup>64)</sup>

위의 기사는 동신성모에 대한 두 가지 고증을 서술한 것이다. ①은 송의 佑神館에 있는 神堂에 대한 것이고, ②은 송의 사신이 지은 『祭東神聖母文』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①에서는 館伴學士 王黼의 말을 빌어 우신관 신당의 신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신관의 여선은 ②에서 말한 고려의 동신성모와 같은 것인데, 서긍의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이것은 주몽을 낳은 유화이다. 이에 견주어 볼 때 그를 “제실의 딸”이라고 한 것은 중국 쪽에서 변형된 인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그가 ‘辰韓’으로 왔다거나 地仙이 되어 仙桃山에 살았다는 설명은 김부식의 해석으로 판단된다. 설명 전체가 김부식에 의해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②에서 “娠賢肇邦”은 ‘海東始主’의 잉태를 말한 것인데, 이를 매개로 김부식은 동신성모를 仙桃山聖母로 이해하였다. 『삼국유사』에 선도산성모는 혁거세의 어머니로 나오는데, 혁거세는 『삼국사기』에서 가장 먼저 즉위한 존재이다. 김부식은 해동시주가 누구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辰韓 곧 신라가 해동의 출발이라는 인식을 피력함으로써 동신성모가 선도산성모라는 해석을 유도하였다. 이것은 동신성모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인식이 아니라 『삼국사기』 편찬 단계에서 구성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sup>65)</sup>

이러한 속성을 감안하고 위 내용을 검토하면 동신성모에 대한 당초의 인식을 추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海東始主’이다.<sup>66)</sup> 우신관의 여선은

64)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12 “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65) 기존 연구에서 두 기사는 통상 ‘동신성모=선도산성모’라는 인식 하에 그 의미가 탐구되었을 뿐, 유화로부터 선도산성모로의 ‘변형’이라는 맥락은 별달리 고려되지 않았다. 실상 김부식이 海東始主가 누구인지 언급을 피한 것은 기존에 고려의 역사적 출발로서 동명왕에 대한 인식을 전면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김부식의 동신성모 해석과 선도산성모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後稿에서 별도의 주제로 논할 예정이므로 여기서 자세한 언급은 피한다.

66) 『삼국유사』에는 ‘東國始君’으로 표현되어 있다(『三國遺事』 권7, 感通 仙桃聖母 隨喜佛事

해동시주를 낳았다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 김부식은 동국의 역사가 신라부터 시작했다는 맥락에서 혁거세를 염두에 두었지만, 당시까지 고려의 역사의식에서 동국 역사의 출발은 당연히 주몽이었다.

이것은 동신성모가 주몽을 낳았다고 한 서공의 설명에서 곧바로 확인되는 데,<sup>67)</sup> 다음 기사 또한 그러한 역사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① 五族의 강한 우두머리를 통합하고 三韓의 비옥한 땅을 지배하여 (중략) ② 朱蒙이 건국한 상서를 계승하여 저들의 왕이 되고, 箕子가 蕃國이 된 자취를 밟아 은혜와 조화를 베풀었다. (중략) ③ 교활한 오랑캐[黠虜]가 재앙을 일으키는 데 분노하고, 이웃 나라[隣邦]를 걱정하여 근심에서 구원하였다.<sup>68)</sup>

위 기사는 태조 16년(933) 後唐이 왕건을 高麗國王으로 책봉한 글의 일부이다. 고려가 처음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은 것이다.

이전까지 고려는 신라에 대해 尊王論을 내세우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라와 함께 후당에 사신을 보낸 王逢規는 다름 아닌 王建으로 파악된다.<sup>69)</sup> 왕건은 견훤의 기습으로 경애왕이 피살되자 신라에 대한 존왕론을 폐기하였고, 고창군 전투에서 승리한 후 태조 14년(931) 신라 왕경을 방문하여 자신이 삼한의 주인임을 천명하였다. 후당의 책봉은 이를 공인하는 의미를 가진다.<sup>70)</sup> 그에 상응하여 이 책봉문에는 당시 고려가 지향한 역사의식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우선 ①에서 五族은 고려의 인적 구성을, 三韓은 공간적 구성을 상징한다. ②에서 朱蒙의 開土는 고려 국가의 역사적 출발을 나타내며, 箕子의 作藩은 중국과의 사대 외교를 나타낸다. ③에서 黠虜는 후백제를, 隣邦은 신라를 가리킨다.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盖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

67) 서공의 사행과 『삼국사기』 편찬의 시차는 20여 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인식은 당시에 일반화된 내용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8) 『高麗史』 권2, 太祖 16년 3월 辛巳 “統五族之強宗 控三韓之奧壤 (중략) 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之跡 宣乃惠和 (중략) 忿黠虜之挺祚 恤隣邦而救患”

69) 927년 王逢規는 林彥을 후당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같은 해 고려도 임언을 보낸 기사가 확인된다. 왕봉규의 실체에 대해서는 윤경진, 2018 『知康州事 王逢規와 高麗 太祖 王建』 『역사와실학』 65 참조.

70) 윤경진, 2018 『고려의 對後唐 외교와 신라: ‘尊王論’의 전개와 관련하여』 『史林』 66.

위에서 고려의 국가적 정체성은 명백히 고구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땅이 ‘삼한’으로 지칭되고 후백제 제압과 신라 구원이라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고려가 삼한을 일통할 주체임을 인정하는 맥락이다. 이 점에서 고려의 역사의식은 고구려 정체성을 바탕으로 삼한을 일통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왕건이 궁예를 축출한 뒤 ‘고려’ 국호를 복구한 것과 아울러 궁예의 업적을 논하면서 “海内の 겸병”, 곧 후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을 적시한 것에서도 그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이후 고려국왕 책봉문에서도 확인된다.

- ① 三韓 疆域의 웅장함을 돌아보니 禹가 治水한 경계 밖에 자리잡았다. (중략) 朱蒙의 나라에서 왕위를 이어받아 玄菟의 고을에 가르침을 베풀었다.<sup>71)</sup>
- ② 朱蒙의 작위를 계승하여 玄菟의 강토를 넓혔다. (중략) 먼 곳에서 봉토를 세습하고 帶河의 맹서를 전하니 德化를 辰下에 폈다.<sup>72)</sup>

위의 두 기사는 모두 문종 때 거란이 보낸 책봉문의 일부이다. 양자 공히 주몽 계승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①에서는 앞에 ‘三韓’을 말하였고 ②에서는 뒤에 ‘辰下’를 말하였다. 국왕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로서 삼한과 진변은 모두 고려가 이룩한 일통의 공간을 나타낸다.

결국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단순히 왕조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원으로 제시된 삼한의 일통을 통해 확장된다. 고구려 계승에 기초하여 삼한의 일통을 실현한다는 역사의식인 것이다. 이 구도에서 주몽은 고구려 시조를 넘어 ‘삼한=동국’ 역사의 출발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유희는 그를 잉태한 존재로서 그 본원을 나타낸다.

‘海東’은 본래 四海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나타내지만, 고려초기에는 삼한의 일통에 의해 형성된 천하를 표상하였다.<sup>73)</sup> 이 해동에서 주몽이 국가 수립을 통

71) 『高麗史』 권8, 文宗 11년 3월 乙酉 “眷三韓闔闔之雄 限伯禹方隅之表 (중략) 粵自襲爵朱蒙之國 宣風玄菟之鄉”

72) 『高麗史』 권8, 文宗 19년 4월 癸巳 “其有嗣爵朱蒙 申疆玄菟 (중략) 表海襲封 帶河傳誓 化敷辰下”

73) 윤경진, 2018 『고려 건국기의 三韓一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한 역사적 ‘출발’을 표상한다면, 동신성모는 그것을 탄생시킨 기반을 상징함으로써 공간적 ‘본원’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신성모는 고려의 삼한일통의식과 연결된다.

여기서 예조묘(동명성제사)가 평양에 수립된 것과 달리 동신사를 개경에 건립한 이유가 설명된다. 평양의 동명성제사는 고구려 계승의 함의를 가진다. 평양이 고려(전고려)의 발흥지로 설정되면서 그러한 의미는 더욱 뚜렷해졌다. 따라서 그 자체로 삼한을 표상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개경은 삼한을 일통한 고려(후고려)의 도읍이다. 태조가 삼한을 일통한 군주로서 평가되는 것에 상응하여 도읍 개경은 ‘일통삼한’의 역사적 함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高麗三京의 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고려에서 개경과 서경은 당초 두 개의 도읍으로서 ‘兩京’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성종 14년 경주에 東京이 설치되면서 고려삼경이 성립하였다. 서경은 고려의 전신으로서 고구려를, 동경은 신라를 나타낸다. 삼한의 일통은 고구려의 연장으로서 고려와 신라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는 구도이다. 여기서 개경은 통합의 이념을 담게 되는데,<sup>74)</sup> 동신사는 그러한 개경의 함의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동신성모는 당초 부여신으로서 고구려의 부여 정체성을 표상하던 것이지만, 고려에서는 국가 연원으로서 三韓 내지 그 역사를 포괄하는 東國을 표상하였다. 주몽에서 시작된 고려는 새로운 천하로서 海東을 형성하였고, 이 점에서 주몽(동명)은 ‘高麗始祖’인 동시에 ‘海東始主(東國始君)’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주몽 자신은 고려의 시조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해동시주의 함의는 그를

74) 윤경진, 2017② 『고려초기 三韓一統意識과 ‘高麗三京’: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함의』 『한국중세사연구』 51. 이후 숙종 때 南京이 건설되면서 高麗三京의 의미에 변화가 있었다. 서경에서 출발한 고려가 개경을 거쳐 남경으로 수립되는 구도로서 삼한의 일통에서 신라와의 결합은 배제되었다. 고려는 온전히 一統三韓의 표현체가 되며 남경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맥락이다. 개경은 서경에서 출발하여 남경으로 가는 과도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윤경진, 2020 『고려 숙종대 南京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역사』 105). 이 경우 개경의 동신사는 그 함의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고려도경』에서 묘사된 동신사의 황량한 모습은 송 사신의 편견도 작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동신사의 중요성이 떨어진 사정도 감지된다(채미하, 2016 앞의 논문, 32면).



낳은 유화를 통해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東神聖母’는 그러한 의미를 드러낸 명칭인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시대 東神聖母 숭배의 연원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동신성모는 고구려 창업주 주몽을 낳은 柳花를 말하는데, 고려에서 그에 대한 숭배가 역사 계승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창업주 朱蒙의 어머니 柳花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地母神 내지 농업신으로서의 속성으로서 江의 神인 河伯의 딸이라는 데서 유도된다. 國中大會에서 제사하는 隧神도 이와 관련된다.

다른 하나는 국가 연원과 관련된 상징성으로서 太后廟와 夫餘神 두 가지 지표가 확인된다.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유화는 부여에 남았는데, 이는 유화가 고구려와 부여를 연결하는 매개임을 반영한다. 유화가 사망한 곳은 동부여로 나오며 『삼국사기』에 주몽의 출신도 동부여로 되어 있다. 반면 온조설화와 「광개토왕비」에는 북부여 출신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당초 동부여 출자 관념을 가지고 있던 고구려가 뒤에 그 출자를 북부여로 재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여의 유화 사당으로 지목된 太后廟는 태조왕 때 수립된 것으로서 부여 출신인 태조왕 모후의 사당으로 판단된다. 부여의 태후묘는 고구려의 부여 출자를 표상한다. 그런데 고구려 시조로서 주몽의 위상이 확립되면서 태후묘는 유화의 사당으로 재인식되었고 부여 출자의 상징으로서 유화는 夫餘神으로 지칭되었다. 부여신은 주몽을 나타내는 高登神과 함께 고구려의 중심 신격이었다. 고등신을 제시하는 始祖廟가 창업지인 졸본에 있는 것에 상응하여 부여신의 신묘, 곧 태후묘는 부여에 있었다.

고구려와 고려는 하나의 왕조로서 연속성을 가지며, 그 안에서 前高麗와 後高麗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고려는 주몽(동명)을 자국의 창업주로 간주하였고, 왕

건은 삼한을 일통한 군주로 인식하였다.

동명의 사당은 평양에 있었으며, 東明聖帝祠(東明王廟·東明神祠), 또는 藝祖廟로 지칭되었다. 예조는 창업주를 가리키는 말로서 고려의 창업주가 동명임을 나타낸다. 서경은 예조가 발흥한 곳으로 간주되었으며, 연등회와 팔관회 때 대신을 보내 제사하였다.

당초 고구려의 창업지는 졸본이고 이곳에 시조묘가 있었음에 비추어 고려에서 창업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졸본이 고려 영토 밖에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지를 평양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양에는 창업 사적이 생성되었다. 珍珠墓라는 동명왕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永明寺가 동명왕의 궁궐인 九梯宮으로 설명된 것은 그 산물이다. 서경 예조묘는 졸본에 있던 고구려 시조묘를 그대로 평양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주몽과 경쟁했던 松讓의 사적도 함께 이동했는데, 평양 인근 成州가 송양의 故都로 제시되었다. 이곳에 沸流江이 있고 이곳이 卒本川이라고 이해된 것은 그 산물이다. 『삼국유사』에서 졸본을 成州로 이해한 설이 소개된 것도 그 연장에 있다. 또한 고구려 초기 외교적 갈등을 빚었던 黃龍國을 평양 인근의 龍岡縣에 비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양의 동명 사적은 고구려와 고려의 일체성을 반영한다. 고려의 북방 개척은 “동명의 옛 땅”을 되찾는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거란과 전쟁을 치른 후 고려의 고유 영토는 압록강으로 제한되었다. 영토 수복이 현실적 함의를 상실하게 되자 이로 인한 국가 정체성의 약화를 막기 위해 구도 평양을 동명의 창업지로 설정한 것이다. 평양이 ‘根本之地’로 간주된 것은 고려의 발흥지, 나아가 동국 역사의 출발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통해 강화되었다.

서경의 동명성제사가 고구려와의 일체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개경의 東神祠는 이와 다른 층위에서 고려의 역사의식을 담고 있다. 『고려사』에서 동신사는 문종대 기록에 처음 보이며, 이후 인종대까지 주요 제사처의 하나로 산견된다. 이는 유화가 가지고 있던 地母神의 속성과 연결되지만, 한편으로 ‘동신성모’라는 명칭은 역사의식의 측면에 그 본령이 있음을 반영한다.

『高麗圖經』에 실린 東神祠에 대한 설명을 보면, ‘東神聖母之堂’이라는 편액이 있고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夫餘의 妻로서 주몽을 낳아 고려의 시조가 되었다는 설명도 보인다. 주몽을 낳은 동신성모는 곧 유화이며, “부여의 처”라는 서술은 ‘부여신’에서 유도된 것이다. 신상 또한 부여신에 대한 서술과 합치한다.

그런데 고려의 삼한일통의식에서 고구려 또한 삼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에 선행한 부여 정체성은 소멸하였다. 삼국의 역사는 ‘삼한=동국’의 역사로 수렴되며 동명은 고려의 시조를 넘어 동국 역사의 출발을 표상하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유화는 동국의 시조를 낳았다는 데서 그 의미가 수립되어 동신성모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송의 佑神館에 있는 女仙像을 소개하며 帝室의 딸로서 辰韓으로 가서 海東始主를 낳았고 地仙이 되어 仙桃山에 있다는 설명이 실려 있다. 그리고 王襄의 『祭東神聖母文』에서 “현인을 잉태하여 나라를 처음 세웠다[娠賢肇邦]”라는 구절도 인용하였다.

우신관의 여선은 유화이며, ‘제실의 딸’은 중국에서 변형된 인식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辰韓으로 왔다거나 선도산에 있다는 등의 설명은 김부식의 해석이다. 그를 仙桃山聖母로 이해한 것은 해동시주를 혁거세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삼국사기』 편찬 단계에서 구성된 것이며, 이로부터 그 원형을 추출할 수 있다.

‘海東始主’는 본래 주몽을 나타낸다. 태조 16년 後唐이 왕건을 책봉한 글에는 三韓을 지배한다는 서술에 이어 朱蒙이 건국한 상서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다는 내용과 후백제를 제압하고 신라를 구원한다는 지향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고구려 정체성을 바탕으로 삼한을 일통한다는 이념으로 정리되는데, 그 역사의 출발은 곧 주몽이다. 삼한을 바탕으로 주몽을 계승했다는 내용은 이후 고려국왕 책봉문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

이러한 역사의식에서 주몽이 국가 수립을 통한 ‘출발’을 표상한다면, 동신성모는 그것을 탄생시킨 공간적 기반으로 ‘본원’을 표상한다. 이것이 고려에서 유

화를 동신성모로 숭배한 근본적 이유이며, 궁극적으로 고려의 체제 이념으로서 삼한일통의식과 연결된다. 평양에 수립된 藝祖廟에 대응하여 東神祠가 개경에 건립된 이유는 바로 고려의 一統三韓에 조응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東神聖母, 朱蒙, 柳花, 夫餘神, 東神祠, 海東始主

투고일(2020. 12. 4), 심사시작일(2020. 12. 8), 심사완료일(2020. 12. 23)

〈Abstract〉

## Origin and Meaning of Dongsinsungmo(東神聖母) Worship in Goryeo Dynasty

Yoon Kyeong Jin \*

Sungmo(聖母) generally means a mother who gave birth to a founder of dynasty and she symbolizes identity of the dynasty. Dongsinsungmo(東神聖母) is Yuhwa(柳花), mother of Jumong(朱蒙) who is a founder of Goguryeo dynasty. In Goguryeo, Yuwha was a goddess of agriculture and she represented identity of Buyeo dynasty. There, she was called as the goddess of Buyeo(夫餘神) and worshipped with the founder Jumong.

Goryeo succeeding to Goguryeo also inherited worship of Jumong and Yuhwa. Goryeo regarded Pyeongyang as the foundation area of King Dongmyeong Jumong and worshipped him by erecting ‘The temple of Dongmyeong holy emperor’ in Pyeongyang. And it designated historical sites in early Goguryeo period just like ‘Songyang(松讓)’ and ‘Hwang'yongguk’(黃龍國) in the nearby area. However, worship of Yuwha was changed in meaning because Goryeo didn't have identity of Buyeo.

Goryeo inherited not only worship of Jumong but also Yuhwa. The temple of Dongsin(東神祠) was erected in Gaegyeong and ancestral rites of the nation like ritual for rain were also held. The reason why Yuhwa got the name ‘Dongsinsungmo(東神聖母)’ is that she gave a birth to the first king of Haedong(海東始主). In Goryeo, Jumong was regarded as not only first king of Goguryeo but also starter of Dongguk(東國)'s history. While the perception of Jumong focused on the identity of Goguryeo, the origin of the Dongguk was expressed through Yuhwa. In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assess that worship of Yuhwa in Goguryeo was ideology for system and it involved “Notion of Three Hans being one”.

**Key Words** : Dongsinsungmo(東神聖母), Jumong(朱蒙), Yuhwa(柳花), the goddess of Buyeo(夫餘神), The temple of Dongsin(東神祠), the first king of Haedong(海東始主)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